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창완	학번	2019
이메일	Kimcw8302@gmail.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Leeds / Glob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국가) 영국
기간	2020.1. ~ 2021.1. [귀국일: 2021 년 1월 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13일

신청인 : _____ 김 창 완 _____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저는 영국 중부 Leeds에 위치한 University of Leeds에서 GMP 2년차 생활을 했습니다. Leeds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 규모로 영국에서는 3,4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도시이며 과거에는 산업 도시로 발전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집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고 집 주소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계좌를 만드는 것 같은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가족 기숙사를 신청해 거주했는데 일반 가정집을 원할 경우 초기에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집들을 보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리즈에는 한국인들이 그리 많지 않으나 많은 한국인들은 민우드, 알우드리와 같은 곳에 머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리즈에는 별도의 한인 마트는 없고 시내에 Taste the Orient, 씩카이와 같은 중국인 마트에서 한국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고 나면 계좌개설, 핸드폰 개통 등을 할 수 있는데 계좌는 학교에서 받은 Bank Letter가 있으면 학생용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Monzo와 같은 인터넷 은행의 경우 별도의 Bank Letter 없이도 계좌를 만들 수 있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파운드화 입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onzo와 함께 Barclay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Barclay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계좌 개설을 예약하면 약 2주 후에 지정된 날짜에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 인터넷으로 Sim Card를 신청하면 한국에도 보내주는 GiffGaff라는 통신사를 썼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통신사가 있으니 비교해 보시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라 인터넷, 가스 등은 이미 개통이 다 되어 있었지만 일반 가정집으로 들어가시는 경우 이 부분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영국 대학원의 수업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수가 수업 시간 전에 2~3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Reading List를 주고 그 논문을 읽어가면 주요 쟁점들에 대해 그룹을 구성해 토론을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2개 정도의 수업을 듣는다고 할 때 일주일에 읽어야 할 논문이 5~6개에 이르기 때문에 논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어가지 않으면 세미나 때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문의 주요 내용이라도 파악하고 세미나에서 논의할 쟁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업 역시 영어 용어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Reading List를 읽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의 경우는 Essay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ssay의 경우는 30학점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6,000자 1개 혹은 3,000자 2개를 제출하게 됩니다.

Essay 주제는 교수가 직접 제시해주거나 본인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영어로 저 정도 분량의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아 사실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주제와 관련된 논문은 Google Scholar를 통해 검색하면 조금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Essay 과제 때 초안을 작성해서 교수님께 메일로 드리고 조언을 구했는데 교수님께서 찾아오라고 해 직접 첨삭을 해주셔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업에 따라 개인적인 첨삭은 불가능하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KDI에서 수강한 Academic Writing 수업이 Essay 작성시 Reference 등을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Leeds 대학의 Glob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과정은 KDI 랑 제휴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영국 대학원은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데 반해 저는 KDI 1년차를 모두 마치고 1월부터 영국 대학원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이미 1학기 수업을 들은 후라 수업을 따라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학과 사무실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학교 도착했을 때 제가 향후 1년간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수강신청도 학과 사무실의 도움으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경우도 생각과는 달리 9월에 수업을 듣지 않아도 따라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논문의 경우는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촉박하게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9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경우 9월 학기 때 논문 작성법에 대해 수업을 듣고 1월까지 논문 주제에 대한 Proposal을 제출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논문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논문 작성법에 대한 수업 없이 논문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9월까지 논문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논문 작성이 다소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논문 지도교수가 KDI 제휴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수(Adam Tyson)여서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지도교수 면담시에도 보완해야 될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줘 논문을 기한 내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대학원을 가시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1월에 가시는 경우라면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학과 사무실, 지도교수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제가 살았던 가족 기숙사는 1층에는 주방과 거실, 2층에는 방 세 개로 구성된 영국의 전형적인 가정집이었습니다. 월세는 800파운드 정도였는데 일반적인 가정집의 경우 1100~1200파운드 정도 되는데 반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월세에 인터넷, 수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가정집 월세에는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랑 와이프 2인 가족이어서 기숙사도 거주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으나 아이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조금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편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등 각종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초기 정착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KDI를 끝내고 가는 경우 1년만 현지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정착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학업 또는 여행에 시간을 활용하는데 크게 도

움이 됩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일반 가정집도 그렇지만 기숙사도 실내가 상당히 추운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 방식이어서 라디에이터 주변만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장판이나 따수미텐트와 같은 실내용 방한도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사실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Leeds 주변 여행을 많이 갔는데 Leeds 주변에 말함코브, 하로게이트, 요크, 나즈브러 같이 소소하게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영국에서 보낸 GMP 2년차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잘 통제가 되지 않았고 막판에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는 바람에 1년간 총 3번의 락다운 조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락다운은 슈퍼, 약국과 같은 필수 상점 외에는 모두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로 사실상 외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단조로운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2년차 때는 외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영국 비자의 경우 비자 발급 전에 결핵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결핵 검사에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해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약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결핵 검사를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출입국과 관련 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리즈는 대학이 많은 대학 도시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더해 시내에 다양한 쇼핑몰이 있어 나름 즐길거리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국의 중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스코틀랜드와 같은 북부지역, 런던과 같은 남쪽지역에도 가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해 한인 커뮤니티가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식이라던지 한인들을 만나는 것을 어렵지만 그런 단점을 제외하면 영국의 문화를 느끼고 안심하고 살기에는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